논어 6편 옹야 13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孟之反不伐，奔而殿，將入門，策其馬，曰：『非敢後也，馬不進也。』」

독음 · 자왈 맹지반불벌 분이전 장입문 책기마 왈 비감후야 마부진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맹지반은 퇴각할 때 뒤에서 군대를 지켰지만, 말이 나아가지 않아 늦었다며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孟 맏 맹 맹 / 之 갈 지

反 돌이킬 반 반 / 不 아닐 불 / 伐 칠 벌 벌 / 奔 달릴 분 분

而 말이을 이 / 殿 대궐 전 전 / 將 장차 장 장 / 入 들 입 입

門 문 문 문 / 策 채찍 책 책 / 其 그 기 / 馬 말 마 마

非 아닐 비 비 / 敢 감히 감 감 / 後 뒤 후 후 / 也 어조사 야

進 나아갈 진 진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